



경영진 평가결과, 조합원 50% '만족', 12.1% '불만' 비조합원 70.8% '만족', 8% '불만' 수익구조 개선, KTX 이동사업,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긍정 평가

조합원들은 현 경영진의 2년 8개월간 회사경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수익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위원장 정재용)가 노조규약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장영섭 사장을 비롯한 연합뉴스 경영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2면 그래픽기사 참조)

이번 경영진 평가 설문조사에는 조사대상 조합원 393명(노조전임자 2명, 특파원 19명, 해외연수자 8명 제외) 가운데 79.9%인 314명이 참여했다.

먼저 경영성과, 공정보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사, 사내 민주화 등 평가항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2년 8개월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묻은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자를 더한 수치)는 응답자가 50%에 달했다.

반면 '불만이다'('매우 불만이다'와 '대체로 불만이다'는 응답자를 더한 수치)와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는 각각 12.1%와 37.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항목별 결과를 보면, '현 경영진의 재임 기간 회사의 수익구조와 경영상태가 개선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84.7%가 '개선됐다'('매우 개선됐다'와 '대체로 개선됐다'는 응답자를 더한 수치)고 답했다. 반면 '악화됐다'('매우 악화됐다'와 '대체로 악화됐다'는 응답자를 더한 수치)와 '그대로

다'는 응답자는 각각 4.8%와 9.9%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 경영진 재임기간 이뤄진 인사(人事)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합원의 25.2%가 '잘했다'('매우 잘했다'와 '대체로 잘했다'는 응답자를 더한 수치)고 응답했으며, 19.7%가 '잘 못했다'('매우 잘못했다'와 '대체로 잘못했다'는 응답자를 더한 수치)고 반응했다. '보통이다' 응답자가 54.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 부문에 대해선 35.1%가 '강화됐다'고 응답한 반면, 17.8%는 '약화됐다'고 답했다.

사내민주화에 대해선 37.6%가 '진전됐다'고 답했으며, 9.8%가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또 콘텐츠의 경쟁력 항목에 대해선 64.6%가 '강화됐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7.7%는 '약화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KTX 이동방송 사업 진출에 대해선 89.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이밖에 동영상 콘텐츠 사업 진출 항목과 관련, 조합원들은 56.7%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20.4%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에는 비조합원 293명 가운데 38.6%인 113명이 참여, 경영진에 대한 종합평가의 경우, 응답자의 70.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각각 8%와 21.2%가 '불만이다'와 '그저 그렇다'고



17일 오후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집행부회의에서 집행부원들이 경영진 평가 설문조사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응답했다.

비조합원들은 또 인사부문에 대해선 49.5%가 '잘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18.6%가 '잘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합원 83.8% · 비조합원 73.5%, “사장추천위 구성 필요”

금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기 사장 선출과 관련, 대다수의 연합뉴스 직원들이 사장추천권을 갖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추천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내 여론은 노조가 현 경영진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노조가 뉴스통신진흥회측에 요구하고 있는 차기 사장 선임시 사장추천위 구성 문제에 대해 조합원의 83.8%가 '노조대표와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장추천권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는 15.3%에 불과했다.

비조합원의 경우도 사장추천위 구성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가 73.5%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자(23%)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노조 집행부는 조만간 뉴스통신진흥회 이창우 이사장을 면담,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사장추천위 구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원 재교육’ 아이디어 받습니다

점점 치열해져가는 언론환경속에서 직원들의 힘겨운 노력과 분투가 눈에 띈다. '와이브로'나 'P미디어'나 'DMB'나 하는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키'는 재교육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은 외부 어학, 컴퓨터교육의 교육비 지원과 동영상교육이 전부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모두 변화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노조 홈페이지나 노조 메일 등을 통해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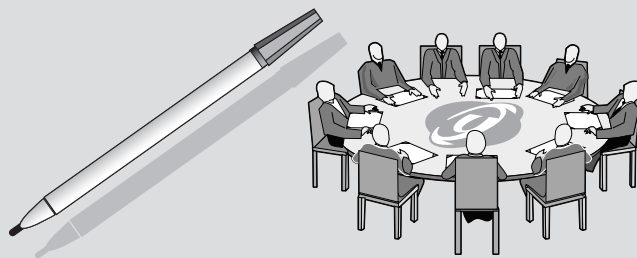
경영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총 조합원 422명

설문대상자 393명(총조합원에서 노조전임 2명, 특파원 19명, 해외연수 8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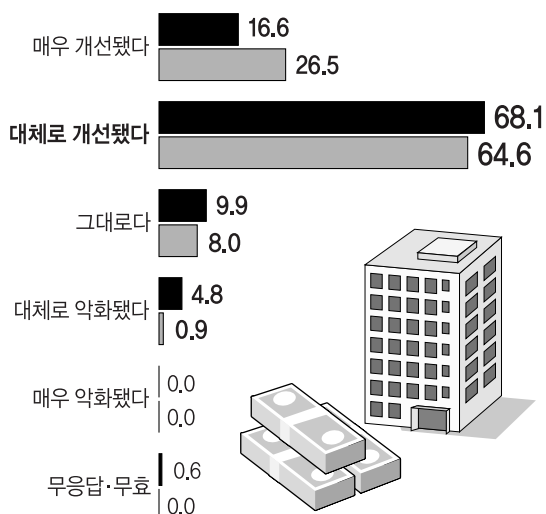
설문참여자 314명 (79.9% 참여)

● 비조합원 총 293명중 113명 참여(38.6%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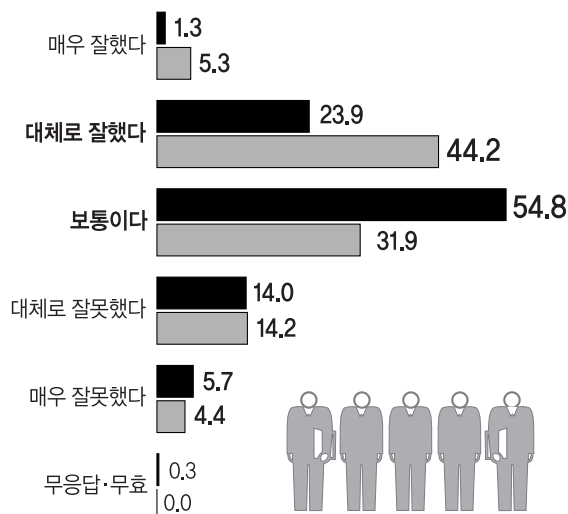


■ 조합원 ■ 비조합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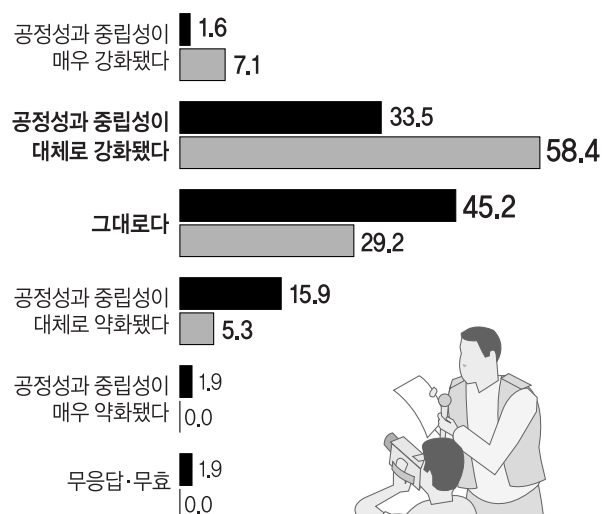
1. 지난 2003년 5월부터 2년 8개월 가량 회사를 이끌고 있는 현 경영진의 재임 기간 회사의 수익구조와 경영 상태가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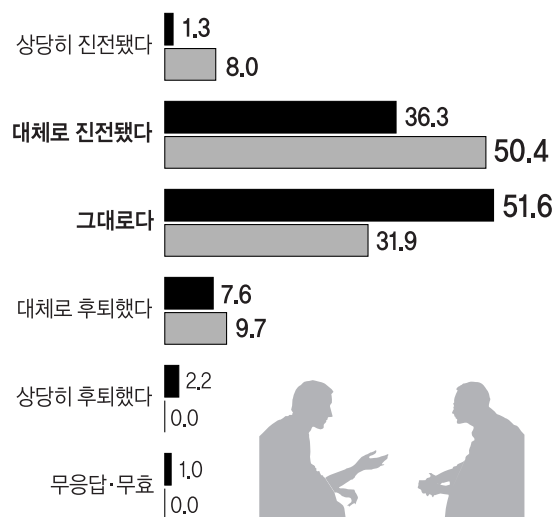
2. 현 경영진의 재임기간 이뤄진 인사(人事)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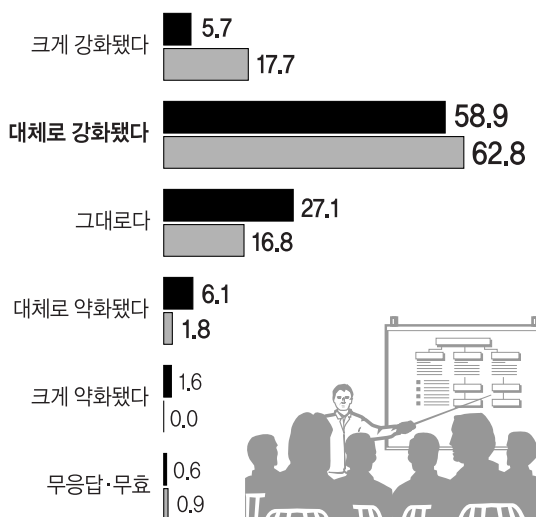
3. 현 경영진 재임기간 회사의 보도행태를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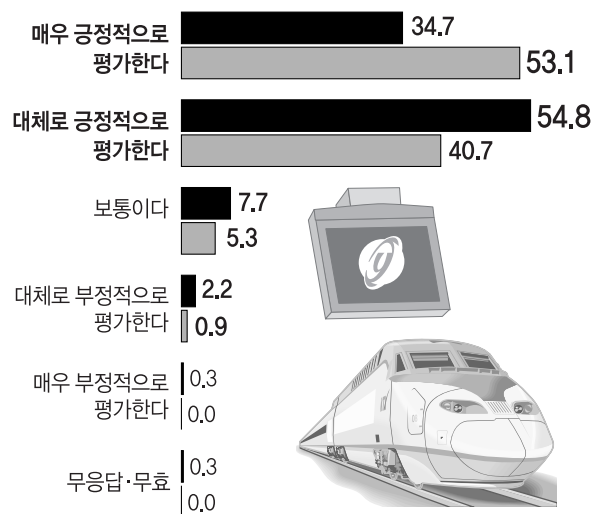
4. 현 경영진 재임기간 사내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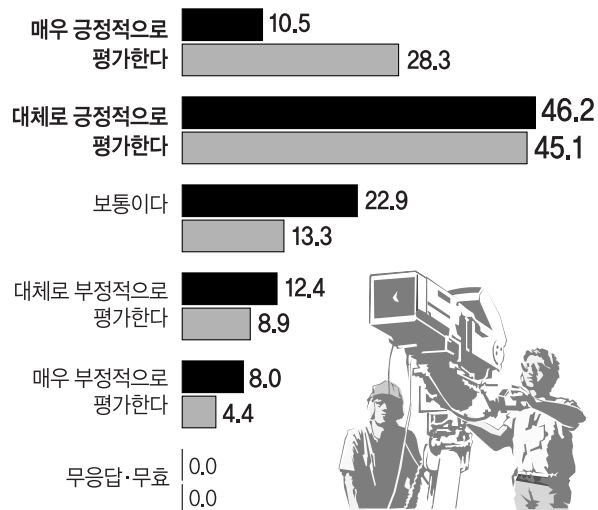
5. 현 경영진 재임기간 기사의 질 등 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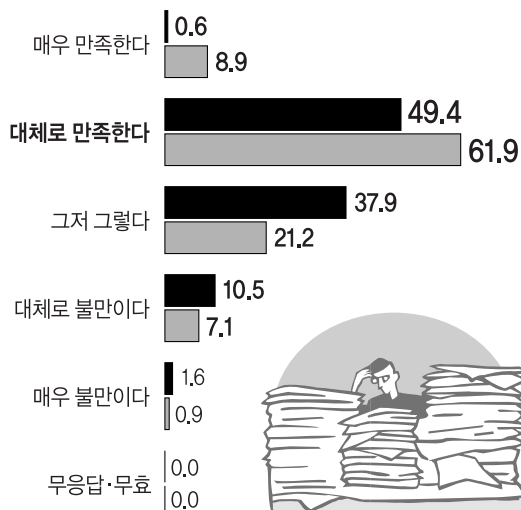
6. 현 경영진은 재임 기간 KTX 이동방송 사업에 진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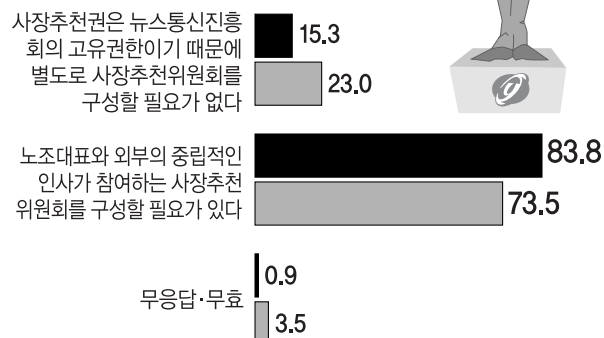
7. 현 경영진은 지난해 멀티미디어본부를 신설, 동영상 콘텐츠 사업에 진출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경영성과, 공정보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사, 사내 민주화 등 평가항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경영진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신다면?



9. 금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뉴스통신진흥회가 차기 사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관련, 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추천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진흥회 이사뿐만 아니라 노조대표와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진흥회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휴명령이행제 본격 가동

‘대휴명령이행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회사는 지난 19일 ‘대휴명령이행제’ 대상자에게 보상휴일 사용을 독려하는 통보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대휴명령이행제’란 지난 연말 임단협에서 노조와 회사가 도입한 새로운 제도로 한달중 토·일근무(출장 포함)가 5일 이상인 사원이 취재 혹은 업무로 인해 1회도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토·일요수당과는 별도로 보상휴일을 보장받는 제도다. 한달중 토·일근무가 5회·6회인 경우에는 보상휴일이 1일 부여되며 7회 이상인 경우는 2일이 부여된다.

이는 통신의 특성상 토·일근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원들의 재충전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는 보상휴일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부서장에게 “부서장은 사용기한내에 해당 부서원이 보상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는 통지문도 전달했다.

보상휴일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사원은 통보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부서장과 협의해 사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일 통보된 보상휴일 대상자는 정치부·사회부·스포츠레저부·민족뉴스부·정보과학부·사진부 등 16개부서(부서·팀·지사 포함), 7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자금 대출 확대·완화운영 시행 장기근속휴가비도 통장으로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운데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완화 운영된다.

지난해 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는 주택구입 및 임차시 적용되는 대출자금과 대출조건을 확대·완화토록하는 운영안을 확정,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금리는 년 4.5%에서 년 3%로 인하되며 자금의 집행주기를 기존의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완화했으며 집행한도도 월 8천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상환기간도 최대 5년 균등분할 상환이던 것을 2천만원 이상 대출의 경우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무주택자·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적용되는 주택자금 대출 금액은 구입시 최고 3천만원, 임차시에는 최고 2천만원이며 인하된 금리의 경우는 기대출자에게도 1월부터 적용되지만 변경된 상환조건은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는 바뀐 운영안을 시행해본 뒤 추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추가 완화안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장기근속휴가 대상자가 만 10년(10년, 20년, 2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초에 대상자들의 별봉통장으로 휴가비를 지급한다. ■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에 격려상 1편 선정

올해의 참글상은 수상작 못 내..

노조 공정정보위원회(간사 권정상)는 제 114회 이달의 참글상(12월 송고분)에 대구·경북지사 이덕기조합원의 <거액 유산받은 조카 학대한 삼촌부부 검거>를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거액 유산받은...> 기사는 경찰측의 비협조로 초기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꾸준한 추적취재와 보안유지를 통해 스트레이트 및 박스기사로 송고함으로써 여러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킨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불우아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점이 인정돼 격려상에 선정됐다.

한편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달의 참글상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 올해의 참글상’은 뚜렷한 추천작이 없어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2006년 1월 송고분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115회 이달의 참글상 마감은 오는 2월 10일(금)이다. ■



최전선에서

“증시 격랑에 매일매일 전투”

얼마전 일본의 ‘벤처신화’로 명성을 쌓아온 라이브도어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며 일본 증시를 급락세로 몰아갔다.

이어 ‘한국의 월가’ 여의도에는 정부의 주식투자 양도차익 과세설이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온 한국증시에 균열을 만들었다.

18일. 이번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과 인터넷포털 업계 1인자 야후의 ‘실적 쇼크’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주식시장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검은 수요일’이었다.

또 하루 걸러 다시 찾아온 ‘검은 금요일’ 코스닥 시장에는 울들어 처음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매매현상이 이어진 23일 ‘검은 월요일’에는 코스닥증시가 9.11테러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며 한국증시 사상 첫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증시는 별집을 쭉셔놓은 듯 했다.

증권부원들은 이런 전쟁터 같은 주식 시장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속보 전투를 치른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에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각종 질병 발생 현황,

사상 최대의 폭설 등 기상변화는 물론,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시청률과 OST 판매현황까지..

증시와 연관없는 일이 없더라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다보니 증권 기자의 ‘드넓은 오지랖’을 짐작하기도 남으리라.

증권부원의 하루 일과는 대략 이렇다.

오전 7시30분 팀장에게 출근을 알리는 메신저 접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증권부 기자들은 증권사에서 내놓은 각종 투자 관련 보고서를 기사화하고, 밤 사이 벌어진 일들 가운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골라내 정리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읽는 투자자들의 수익률 전투 준비를 돕는 셈이다.

오전 9시 시황판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간다.

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위해 시황판 구축구석을 뒤지고, 시장의 흐름과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주가를 전망하는 기사에 매달린다. 이것저것 끊임없이 돌아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다.

또 하루 한두명은 ‘증시의 꽃’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닌 공시(公示)에 매달린다.

‘그까이꺼 대충’ 한 두줄 쓰는 ‘단신’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쏟아지는 공시가 수백 건에 달하고, 기자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가 이동하는 상황이고 보면 결코 가

볍게 볼 일은 아니다.

한편 대부분 부원들이 여의도 바닥에서 ‘뽕이’를 치고 있는 동안, 회사로 출근한 내근자는 외신기사와 외로운 사투를 벌인다.

전날 밤 열린 미국과 유럽 증시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한국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기업 동향, 반도체, LCD 등 IT업황, 외국계 증권사가 내놓은 한국증시 및 한국기업의 실적과 주가 전망 자료 등이 내근자가 처리해야 할 몫이다.

여기에 언론으로서 한국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시 기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증권부의 하루 기사 송고전수를 검색해 보면 이런 ‘눈코 뜰 새 없는’ 증권부원들의 일상을 대략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비록 어깨에 지워진 짐들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만큼 활력 넘치는 출입처를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기사를 거친다는 것도 축복이라면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느 업계의 사람을 만나든 풍월은 읊을 수 있을 만큼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이 기본이라면, 생생한 재테크 현장 체험은 일종의 덤이 아닐까. ■



김상훈 증권부



사랑으로 크는 누렁이

초등학교 때 일이다. 여느 시골집처럼 우리 집도 '누렁이'라는 토종개(일명 x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시골에선 지금도 그렇겠지만 개를 기른다는 의미보다는 개와 같이 생활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개는 가족 구성원들과 친근한 동물이었다. 누렁이는 우리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들에 일 나가실 때나 마실 나가실 때, 심지어 장에 나가실 때도 버스정류장까지 나갔다가 오곤 했다. 어머니도 누렁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 당신 손수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 주실 만큼 정성을 보이시곤 하셨다. 나도 얻어먹기 힘든 쇠고기 미역국을...

그렇다고 누렁이가 특별히 영리하다거나, 용맹하다거나, 집을 잘 지킨다거나 하는 특별함을 지닌 개는 아니었다.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개였다.

그 날도 여느 날처럼 학교를 다녀와 집에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누렁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내 앞에서 끽끽거리며 안절부절, 왔다갔다 부산함을 떨었다.

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누렁이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바로 따라 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 저 멀리, 머리와 양손에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누렁이가 힘든 어머니를 위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다. x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제껏 텔레비전에 나오는 훈련된 개들만이 이런 일들을 하는 줄 알았던 내게 누렁이의 행동은 많은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누렁이는 세상에 없지만 가끔 그 때 일이 생각날 때면 작은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큰 힘으로 승화되는지를 새삼 되새기곤 한다.

하지만 때론 잊어버려서, 때론 자존심 때문에, 때론 이해관계로.... 이런 저런 이유로 주위 사람을 이해하기 보다는 냉정한 시선으로 차가운 말을 쏟아내며 상처를 주곤 한 것 같다. 그런 말이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는 차치하더라도 내 자신을 메마르고 황폐화 시킨다는 것을 모른 채하며 말이다.

단지 개의 해를 맞아 개띠인 내가 누렁이를 핏줄삼아 반성하는 단상이라 해도 그다지 할 말은 없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이번 설엔 오랜만에 어머니와 누렁이 얘기를 해볼까 한다. 누렁이를 기억하며 나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며, 그리고 순화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보고자 다짐해 본다. ■



허이희 전산부

이달의 조합활동

● 1월3일 : 정위원장과 집행부원들은 회사 인근 식당에서 27기 수습사원 19명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입사를 축하하고 앞으로 수습교육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1월6일 : 정 위원장은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 언론노조 신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

● 1월5일 : 18대 집행부 신년회를 겸한 제28차 집행부회의를 열어 '경영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함..

● 1월13일 : 노조 산하 지배구조특위(간사 김현준) 위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뉴스통신진흥회의 주식환수 진행과정에 대한 정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사장추천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토론..

● 1월17일 : 제29차 집행부회의를 열어 '경영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문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토의를 거친 뒤 설문조사안을 최종 확정..

● 1월17일 : 정위원장과 집행부원들은 공병설 시경 캡 등 사회부 경찰출입기자들과 회사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취재 활동과 수습교육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1월18일~23일 : 노조 규약에 의거, '경영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해 전사원 대상으로 실시.. 총 9개항목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현 경영진의 경영수행 능력, 인사, 공정보도, 사내민주화 및 사장추천위원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

● 1월18일 : 뉴미디어 전략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IP미디어 특강'에 도 사무국장이 노조대표로 참석, 조만간 다가올 새로운 언론환경 변화에 대해 청취..

● 1월24일 : 경영진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 집계해 사내 게시판에 통해 발표..

● 1월25일 : 정 위원장은 언론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 언론노조 신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특종 말하는 ‘개코’를 가졌으면”

나는 58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닌, 82년 개띠다. '82년 개띠'로 네이버 검색해보니 송혜교, 비, 현빈 그리고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왕의남자'의 이준기가 82년 개띠란다.

단지 나이만 같을 뿐인데 괜한 동질감에 기분이 좋아진다.

비록 미모가 송혜교보다 조금 모자라고 이준기만큼 아리따운 몸매의 소유자도 아니지만 2006년 개의 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만은 누구보다 크다.

먼저 이제 걸음마 연습을 하는 햇강아지(?) 기자로써 걷기 실력과 나아가 달리기 실력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직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아 조그만 돌뿌리에 찢리기만 해도 쉽게 상처가 나지만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다 보면 조금씩 굳은살이 났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전히 넘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새해에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자책보다는 실수를 통해 '체대로 배웠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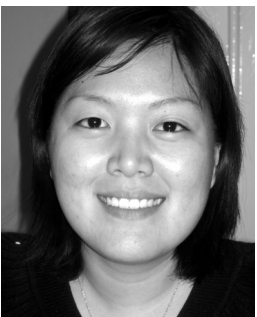
두번째는 특종의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개코'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기자는 머리와 손

이 아닌, 코와 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어느 선배의 말을 참 좋아한다. 발달된 후각을 갖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발'이 밑받침돼야 하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그래도 욕심 담은 소망을 내비친다면, 영화 '광석이 동생 광태'에 나오는 명대사 '인연으로 맺어질 사람이 있으면 절대자가 무슨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겠어'를 패러디해서 특종이 될 기사거리가 있으면 내 코가 무슨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나 내 가슴을 뛰게 했으면 하는 것이다.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 한다.

더불어 몇가지 소원을 덩으로 빌어본다면 노조와 좀더 친숙해지는 것,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연애운이 좀더 상승하는 것 등이 있겠다. 너무 어려운 소원은 아니겠지요? 명명. ■



이주영 대구.경북지사

제3회 연합 참일꾼상 2월 20일까지 추천받아

노조는 오는 2월1일부터 20일까지 '제3회 연합 참일꾼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연합 참일꾼상은 남다른 노력으로 창의성·성실성을 발휘하며 묵묵히 일하는 사원들을 발굴하기 위한 상으로 지난해 5월과 9월에 이어 세번째로 시상하게 된다.

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보 추천을 기대한다.

'연합 참일꾼상' 운영내규는 노조 홈페이지 참조. ■